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박찬욱감독이 주목한 사진가
알렉소스 첫 내한전



Two Towels, Chromogenic print, 81.3x101.6cm, 2005

어둡신한 호텔방. 낡은 침대 위에 백조 두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침대에 웬 백조람?"하고 의아해 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 타월로 만든 백조다. '푸훗..'하고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일상 공간과 풍경,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서 색다른 아름다움과 아이러니를 발견해내는 사진가 알렉 소스(40)의 작품이다. 그의 개인전이 서울 신사동 도산공원앞 I M ART(아이엠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미국 출신의 젊은 사진가 알렉 소스(Alec Soth)는 지난해 세계적인 사진그룹인 '매그넘(Magnum Photos)'의 소속 작가가 됐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의 우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수차례 전시를 가졌다. 그러나 국내에선 I M ART 갤러리(대표 이현미)가 처음 소개한다. 알렉 소스의 작업은 최근 박찬욱감독이 영화 '박쥐'의 촬영 참고자료로 그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워커 에반스, 로버트 프랭크, 스테판 쇼어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 스트리트 사진(American Street Photography)의 계보를 이으며 세계현대미술계서 감각적이며 재능있는 사진가의 한 사람으로 촉망받고 있다. 알렉 소스는 미국 도시에서 촬영된 Sleeping in Mississippi, The Last days of W, 그리고 Niagara 연작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시적으로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기존의 이상적인 미국 도시의 낭만적 묘사들을 회의적 시선으로 응시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어둡거나 침울한 것만은 아니다.



Untitled 22, Bogotá, Chromogenic print, 38.1x38.1cm, 2007



Untitled 29, Bogotá, Chromogenic print, 50.8x50.8cm, 2007

오히려 절제된 빛의 사용, 한정된 색감, 섬세한 묘사로 사물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 속에서 매 상황 만들어지는 매우 작고도 유기적인 연결고리에 의미를 두고 있다. 즉 낯선 도시에서의 일상의 갖가지 단면들을 진부하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로 재탄생시키는 것. 우울함 속에 낙관이 공존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은근히 드러나 그의 사진은

이번에 I M ART 전시에서는 알렉 소스의 여러 연작 중 보고타에서 촬영한 Dog days, Bogot?와 나이아가라(Niagara)가 소개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와 나이아가라 폭포가 촬영된 이 사진들은 작가의 사물에 대한 호기심어린 애정과 예리한 관찰력이 빛을 발한다. 타블로이드 신문 위에 얹혀진 포도라든가 작은 마을 한귀퉁이에 버려진 낡은 목마 따위 등 너무나 사소한 대상들이 그의 카메라에 포착되면 의아할 정도로 아름답고 색다르게 표현된다. 알렉 소스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오한 미는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밝힌바 있다.

총 33점의 사진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 이미지 창조자(Creator of Documentary)'로서 알렉 소스의 어딘가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인 사진들을 음미하면서, 동시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에 그의 사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8월 29일까지 열린다. 02-3446-3766.

HERALD MEDIA

헤럴드

이영란기자